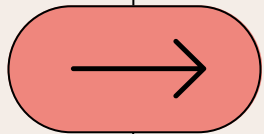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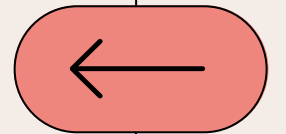


진저티프로젝트



Books



ginger T project

출판

#리더십

#조직문화



어댑티브 리더십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리더십을 발휘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강타한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에게 답을 구하거나, 기존의 지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해결책과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해나가며 해결책을 도출하는 리더십.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누구나, 어느 위치에서나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바로 '어댑티브 리더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나와 조직을 진단하게 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변화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는다. 이 책은 현장수첩이 되어 조직과 사회에서 만나는 고민에 바로 적용해보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Z세대

#여성과 일



롤모델보다 레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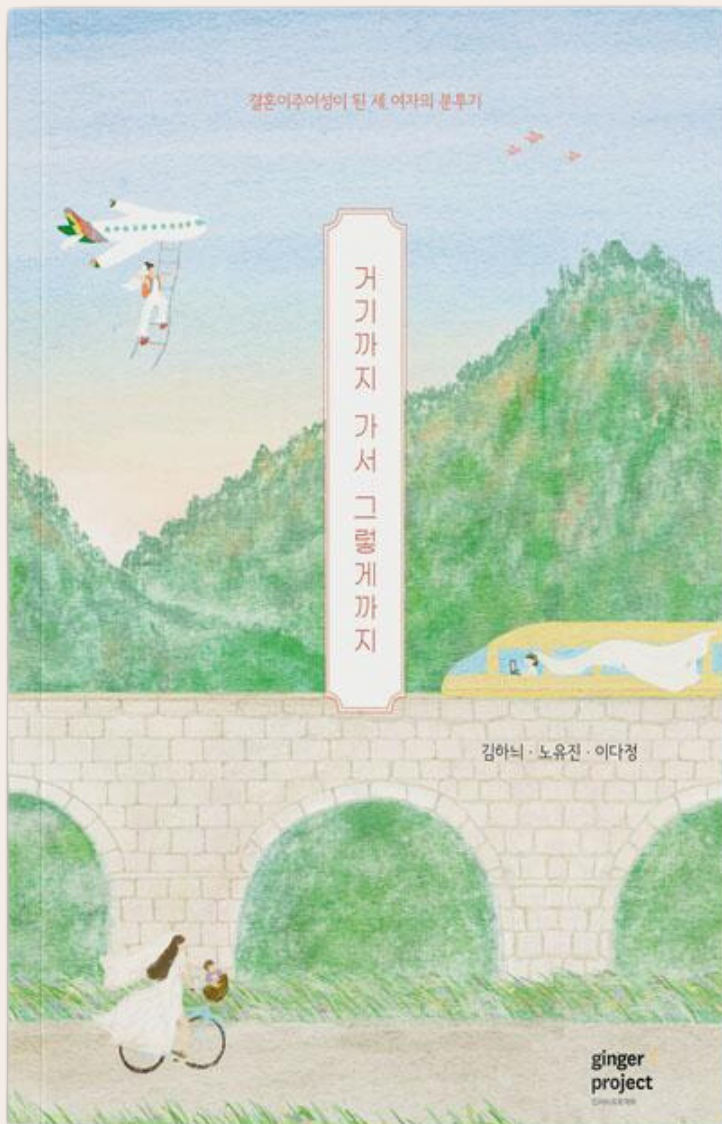
'여성과 일'에 대한 진심어린 '대화'의 기록을 엮은 인터뷰 책.

일의 세계 진입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6명의 Z세대 저자들이
자신보다 한 두 걸음 앞서있는 여성 선배들을 만나
일과 삶에 대해 질문하며 나눈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담았다.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시대는 정답같은 롤모델을 이정표 삼기 어렵다.

롤모델의 커리어를 그대로 따르는 노력보다,
나만의 길을 만들기 위해 한 발 내디딜 용기를 주는
레퍼런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책은 롤모델보다 레퍼런스라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다.



#여성과 일

#로컬

결혼이주여성이 된 세 여자의 분투기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캘리포니아 LA, 충청도 세종, 경상북도 김천. 저자 하니, 유진, 다정이 결혼하며 이사를 가게 된 세 도시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는 결혼 이주 그 이후의 일상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정체성 혼란부터 지역이라는 근무 조건이 붙어 엉켜버린 커리어 고민까지.

결혼과 이주가 함께 온 우리야말로 ‘결혼이주여성’이 아닌가. 살아생전 나와 전혀 관계없을 것만 같던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고 보니, 이만큼 답답한 현실을 꼬집는 단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의존적 삶으로 비유되는 낯은 편견에 나를 가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생생한 야생 생활기(라고 쓰고 분투기라고 읽는다)를 무기 삼아 고정관념을 비틀어 보기로 했다.

이 책은 낯선 도시에서 씩씩하고 끈질기게 자기다운 오늘을 사는 세 여자의 에세이다. 대화가 글이 되고 글이 대화가 된, 따로 또 같이 써 내려간 우리들의 일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시에 오게 된 그 시작점부터 지난 6년의 삽질과 반전의 대서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커뮤니티

#아카이빙

어쩌다
14만 초등교사 커뮤니티가
되어버린 인디스쿨,
그 20년간의 실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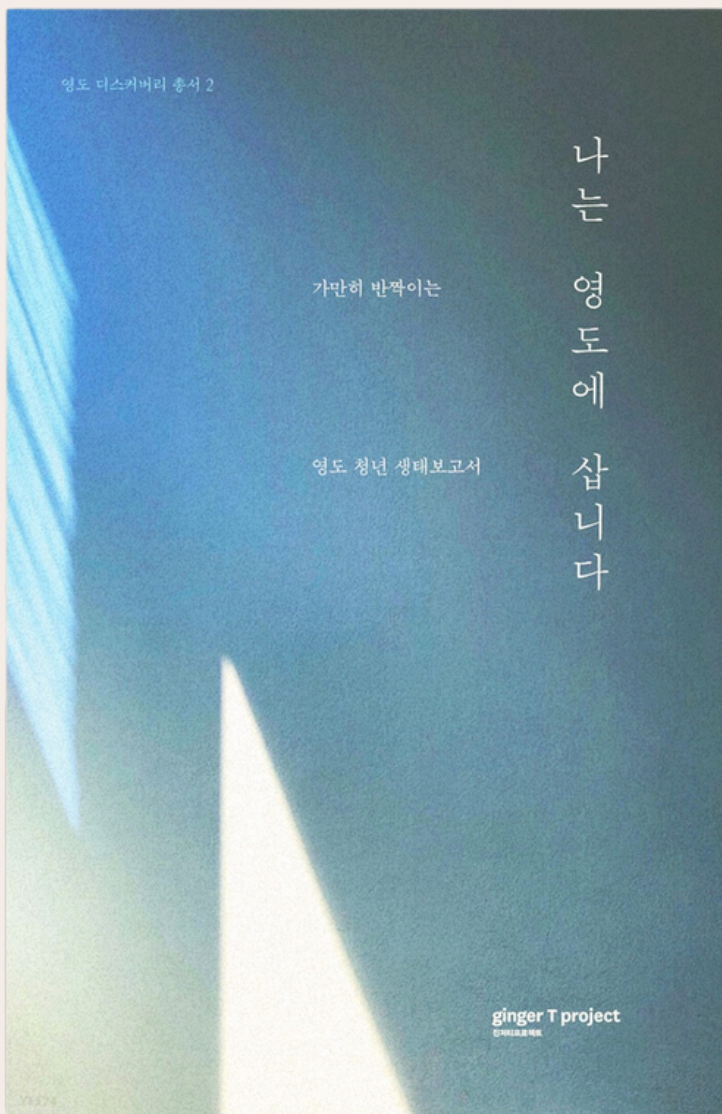
오늘도, 인디스쿨

14만 초등교사가 오늘도 접속하는 국내 최대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이곳에 무엇이 있길래 20년을 이어져왔을까?

인디스쿨은 초등교사 75% 이상이 가입된 초등교사라면 누구나 아는 커뮤니티다. 그러나 초등교사가 아닌 사람은 이곳의 존재를 인지하기조차 어렵고, 가입도 불가능하다. 이 커뮤니티는 초등교사가 만들었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프로그램과 연수를 기획하는 것,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을 초등교사들 스스로 하다 보니 교사들의 생생한 고민과 보람이 짙게 밴 커뮤니티가 되었다.

개방적이지만 폐쇄적인, 모두가 주인이기에 누구도 주인일 수 없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나누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비로만 운영되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커뮤니티 인디스쿨.

이 책은 20년 동안 살아남아 독특한 성장을 이룬 이 커뮤니티의 역사를 탐구하고, 그 긴 시간을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를 해석하고 기록했다.



#청년

#로컬

가만히 반짝이는
영도 청년 생태 보고서

나는 영도에 삽니다

"무엇이 좋은 삶일까? 어떤 일상이 나다운 모습일까?"

《나는 영도에 삽니다》는 부산 영도의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청년 다섯 명의 이야기를 엮은 인터뷰집이다. 세 명의 서울 청년이 영도에서 사는 청년 다섯 명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산을 오르고, 보드를 탔다. 그들의 일상을 함께하고 그들다운 삶과 일의 모양에 대해 대화하며 책이 만들어졌다.

삶의 모양은 동그라미나 엑스가 아니다. 실수하고 어긋나며 벼들벼들 조금씩 나아지는 이들의 삶을 담은 이 책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가깝다.

이들처럼 무엇이 좋은 삶인지, 어떤 일상이 나다운 모습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청소년

#연구

180일간의
청소년 주도 연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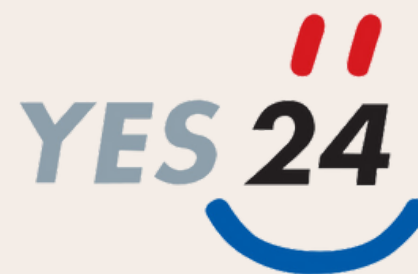
고등학자,
내 삶을 연구하다

청소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청소년이 제일 잘 아니까!

이 책은 청소년이 연구자가 되어 ‘청소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한, 청소년 주도 연구 프로젝트 <고등학자>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담았다. 우리는 그동안 연구 대상에만 머물러 있었던 청소년들에게 연구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연구의 주도권을 주고,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찾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태어나 처음해보는 경험인 연구, 피드백, 어른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또래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경험을 했다.

이 책은 연구자가 되본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는지와 청소년이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과 환



진저티프로젝트에서 출판한 책은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변화를 읽습니다
지식을 짓습니다
네트워크를 디자인합니다